

# 첨단정보의 '보물창고'로 재탄생

## 국내 최초로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문연 홍익대 도서관

지난 5월 9일, 홍익대학교(총장 이면영) 도서관이 국내 최초로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를 열었다. 대학도서관이 간단한 서지사항을 담은 도서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하지만 플랫폼을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전자도서관은 대학도서관 가운데 홍익대가 최초다.

### 풀 텍스트 검색도 가능해

홍익대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는 중앙도서관의 3층과 5층, 각 50평씩을 합해한 100평 규모로 3층에 40대, 5층에 30대씩 모두 70대의 멀티 PC를 구비해 놓았다.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은 그간 발표된 홍익대 박사 학위논문과 VOD(Video on Demand), 학술 CD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 주축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95년 10월 도서관 2층에 전자정보자료실을 개관하면서 본격화됐는데, 외국의 학술 CD롬 검색기능에 자료를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로 개칭, 확장했다.

이번 전자도서관을 위한 첫 작업은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262권의 화일링. 96년말부터 시작한 이 작업은 60년대 논문까지 망라돼 있다. 다만 텍스트 화일이 아닌 이미지 스캐닝이라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화면에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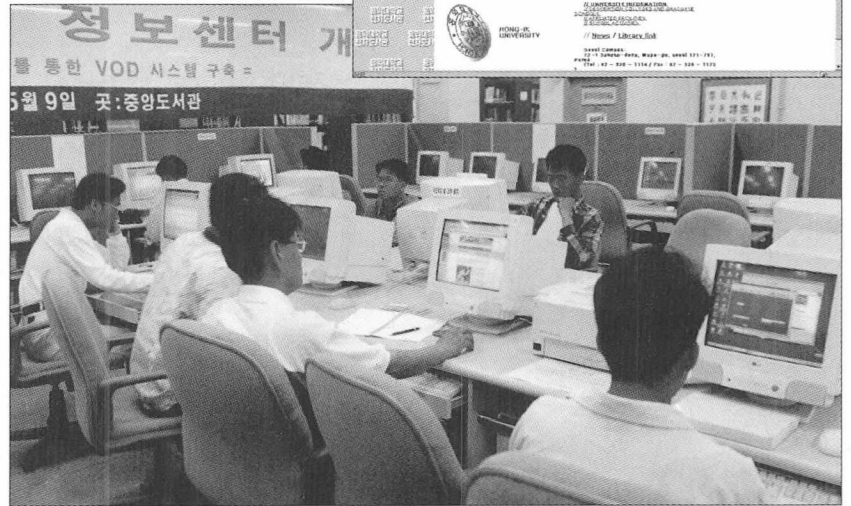
VOD 검색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검색할 수 있는 비디오로 문화방송에서 제작한 <세계의 대학>(23편)을 비롯, 한국방송기자클럽의 <지구촌 탐방>(12편), <세계 10대 문명 대담사>(10편), <세계의 사람들>(20편), 국회신문사의 <아름다운 연변산천>(5편) 등 모두 5종 68개가 있다. 아직까지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홍익대는 미술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장기적으로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미대 학생들의 작품집, 공부에 필요한 외국의 그림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VOD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VOD 검색은 강의를 녹화해 볼 수 있고, 네트워크만 연결해 놓으면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지방과 서울캠퍼스로 직접 강의장면을 송출할 수도 있다."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화일링 김성배씨의 설명이다.

학술 CD롬은 해외 유명 저널 최근자료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논문을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Science Citation Index with Abstracts>, 예술·인문학 분야의 <Art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 모두 21종 272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CD롬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화정보목록>이 들어 있다.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자료검색도 기본적인 기능. "정보센터를 찾는 이용자는 하루 200명선으로 거의 인터넷을 이용한다"며 개관한 지 불과 열흘인데 인터넷전용 컴퓨터는 쉴 틈이 없다고 담당자 최중화씨(45)는 전한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던



원문까지 화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홍익대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위는 홍익대 전자도서관 초기 화면.

도기훈씨(전자전기제어공학과 4)는 "인터넷은 집에서 접속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는 연결이 잘 되고 속도가 빨라 좋다"고 말한다.

### 아직은 정보량 미미, '예산'이 걸림돌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 홍익대는 이번 개관을 자체 시스템의 개통에서만 의의를 찾는다. 첫번째 딜레마는, 100만권에 달하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비해 멀티미디어 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이것은 모든 전자도서관의 딜레마"라고 유철중 주임(49)은 밝힌다. 현재는 올해 나온 석사학위 논문 300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하루 2천명에 달하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비해 턱없이 부족한 컴퓨터 대수도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용 노트북을 도서관

의 각 자료실에서 중앙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보센터를 따로 건립해 확장해나갈 생각이다. 저작권 문제도 간단치 않다. 전자도서관이라면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도서관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작권 문제가 가로놓여 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를 연 후, 홍익대는 하루에도 몇번씩 다른 대학도서관의 문의를 받곤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홍익대는 이번 개관을 위해 70대의 PC를 LG그룹에서 기증받고도 3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각 대학의 디지털화에 앞서 정보검색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대학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견해다.

— 이현주 기자

### 새로 나온 CD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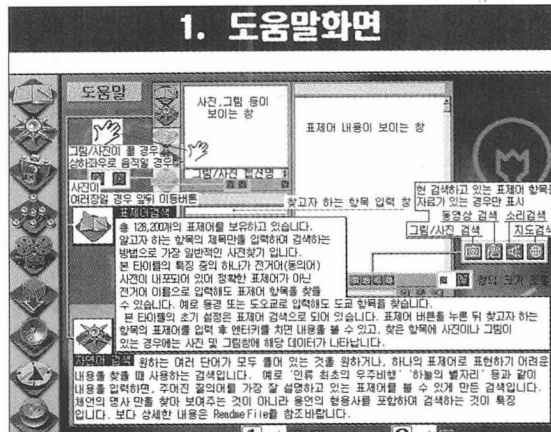
## 다양한 검색의 멀티미디어 백과

###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이 CD롬으로 나왔다. 30권 128,200항목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한 장의 CD롬에 담았는데, 두산동아 홈페이지(<http://www.dong-a.com>)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방대한 텍스트 자료뿐 아니라 원색사진 및 그림 총 6400컷을 포함해 사운드, 동영상 자료가 담겨 있어 명실상부

한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이다.

다양한 검색방법을 활용한 것이 큰 특징.



동의어·주제어 검색, 자연어 질의 검색 등을 통해 알고자 하는 항목을 연관된 내용과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 항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알고 싶은 항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연계내용과 비교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찾은 내용을 필요한 출력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항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여 자신의 자료뱅크에 저장할 수 있고, 별도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다. 두산동아는 백과사전연구소를 두어 새로 추가되는 용어 및 인물에 대한 항목을 인터넷 웹을 통해 시간차 없이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두산동아/CD롬 1매, 하드디스크, 사용설명서/250,000원